

중동전쟁 경제 후폭풍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기업 1.5조 금융지원

정부, 석화분야 등 수급불안 대응 자동차 부제 검토·수출물량 제한 구윤철 부총리 "추경안 조속히 마련"

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의 주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시장 내 나프타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차량운행 요일제' 등의 검토에 나선다.

국내로 들어오는 석유류 중 나프타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안보 품목 지정 시 공급망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중동 전쟁으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능한 정

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 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p) 할인하는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 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도 지체 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

시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교역량 및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 (5부제·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엔화값 급락에 원화 '흔들'... 금융위기 악몽 재현되나

달러·엔 환율 2024년 수준 하락 원화 동조성 높아... 1500원선 위협

'중동사태' 여파로 엔화값이 크게 떨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값이 급등하면서 동아시아 권역의 에너지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서다. 엔화값이 20개월 만에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두며 2024년의 '초엔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엔화와 동조성이 큰 원화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59.03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값이 연중 최저를 기록한 지난 13일의 159.73엔(종가 기준)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달러당 160엔 선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엔화값이 달러당 160엔을 넘긴 것은 지난 202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이번 엔화값 하락의 배경은 '다카이치 2기 내각' 출범 이후 엔화가 약세인 가운데, 중동사태가 발발하며 경제의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일본의 에너지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경제 구조가 유사하고, 같은 권역 통화로 묶여 취급되는 특성도 있어서다. 달러 대비 엔화값이 상승

하면 원화값이 함께 상승하며 엔화값이 하락하면 원화도 함께 하락한다.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둔 역대급 약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원화도 달러당 1500원을 눈앞에 두며 고환율 국면에 있다. 지난 1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의 주간증가는 달러당 1493.6원으로,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겼던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가장 임박한 변수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일본은행은 18~19일 금융정책회의를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0.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금정위 직후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내놓을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단서가 제시된다면 엔화값이 상승하게 된다.

앞서 우에다 총재는 금정위를 앞둔 지난 1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원만히 가고 있고,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안정 목표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임금 상승을 동반한 형태로 물가 안정 목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라며 다소 매파적(긴축 선호)인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동서발전 에너지 절감조치 강화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사진)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초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



18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강화 방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동서발전은 사육 난방온도를 정부 권고(18도)보다 낮은 17도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조명 소등과 PC 절전 소프트웨어 운영은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승강기는 4층 이하 운행을 금지하며 5층 이상은 격층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아울러 사내 복지시설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온수 온도를 제한하는 등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격 인상 불가피 상황... 기능·경험 기반 수요확보 전략 강화

>> 1면 '칩플레이션 삼성·애플'서 계속

이로 인해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핵심 부품인 힌지 공급망을 기존 한국 업체 중심에서 중국 업체까지 확대하며 원가 절감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아직 폴더블폰 신제품의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연례 기자회관에서 "전략과 트너사들과의 중장기 계약과 하드웨어 효율화 등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을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도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며 가격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아이폰 17 e'는 99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서도 기본 저장 용량을 전작 대비 두 배 늘린 256GB부터 제공했다. 가격은 유지하면

서 사양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AI 역량 확대를 비롯해 모바일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나서려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한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해 온디바이스 AI 고도화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허만을 통해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하며 웨어러블 중심의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조사들은 라인업과 기능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저가 모델로 수요를 확보하고 플래그십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가격 경쟁보다는 기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수요 확보 전략 또한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